

'26.8월 취업자수는 18.4만명 증가해 2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

- 서비스업 증가폭 확대, 제조·건설업 감소폭 축소, 농림어업 감소폭 확대
- 청년 쉬었음은 7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고용률 하락 등 어려움 지속
- 최근 취업자수 증가세 뒷받침 + 고용 취약부문·부진업종 개선 위해 총력 대응

① '26.8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3.3%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며, 15~64세 고용률은 70.4%로 전년대비 +0.5%p 상승했다. 경제활동참가율(64.6%)과 실업률(2.0%)은 모두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.

* 8월 고용지표('25→'26년, %): <고용률> 63.3 → **63.3** <경활률> 64.6 → **64.6** <실업률> 2.0 → **2.0**

○ 연령별로는 30대(81.1%, +0.3%p) · 40대(80.7%, +0.8%p) · 50대(78.8%, +1.3%p) 고용률이 상승했고, 60세 이상(47.6%, △0.3%p)은 하락했다.

- 청년 고용률(44.1%, △1.0%p)은 하락세를 지속했으나, 쉬었음 인구는 7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다.

* 청년 쉬었음(만명): ('25.8)44.6 ('26.1)46.9 (2)48.5 (3)40.2 (4)39.1 (5)38.4 (6)35.9 (7)36.7 **(8)39.5**
↳ <전년비, 만명> ('25.8)△1.4 ('26.1) 3.5 (2)△2.0 (3)△5.3 (4)△2.4 (5)△1.2 (6)△4.9 (7)△6.9 **(8)△5.1**

○ 8월 기준으로 15세 이상 고용률과 경활률은 역대 공동 1위이며, 15~64세 고용률은 역대 1위를 기록했다.

②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8.4만명 증가했으며, 계절조정 전월비로는 8.2만명 증가했다.

*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5.8)16.6 ('26.2)23.4 (3)20.6 (4)7.4 (5)△4.0 (6)6.3 (7)10.8 **(8)18.4**

○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경우, 전문·과학·기술 서비스업(△4.4→△0.5만명) 감소폭이 축소되고, 보건복지업(17.3→18.6만명), 예술·여가(4.8→7.3만명) 등이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.

* 서비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4)23.9 ('25)49.2 ('26.1/4)31.5 (2/4)25.4 (6)30.7 (7)29.5 **(8)34.5**

- 제조업($\Delta 6.8 \rightarrow \Delta 3.8$ 만명)은 원자재가격 부담 완화 기대 등으로, 건설업($\Delta 5.7 \rightarrow \Delta 3.2$ 만명)은 자재수급 개선 등으로 감소폭이 축소되었다.
 - 지위별로는 상용직($7.1 \rightarrow 18.0$ 만명) 증가폭 확대, 일용직($\Delta 4.1 \rightarrow \Delta 1.7$ 만명) 감소폭 축소되었으나, 임시직($\Delta 4.0 \rightarrow \Delta 5.0$ 만명)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.
- ③ 8월 취업자수는 3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며 중동전쟁 이후 처음으로 10만명대 후반 증가세를 회복하였다.
- 다만 청년, 제조·건설·농림어업 등에서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, 최근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 불확실성, 전년 9월(31.2만명 증가)의 기저효과 등이 향후 고용증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.
- ④ 정부는 최근 취업자수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, 취약부문·부진 업종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.
- 우선, ‘청년일자리 회복방안’(8.28일) 등 ’27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일자리 사업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준비 및 홍보·사전안내에도 만전을 기한다.
 - 제조·건설·농림어업 등 고용감소가 지속되는 업종은 일자리 전담반을 중심으로 산업활력 제고, 인력양성 등 대응과제를 발굴하고 경제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.
 - 아울러,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고용여건 개선과 사회적 편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공공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발굴·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 - 에너지·공급망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 등을 통한 경제 전반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노력도 병행한다.

재정경제부 <총괄>	민생경제국 인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태웅 (044-215-2840)
		담당자	사무관	박종운 (044-215-2842)
고용노동부 <공동>	고용정책실 미래고용분석과	책임자	과 장	조원식 (044-202-7260)
		담당자	사무관	김주봉 (044-202-7256)

1. '26.8월 고용동향 특징

□ 고용률 63.3%(월간 역대 1위), 경제활동참가율 64.6%(월간 역대 1위), 실업률 2.0%, 취업자수 18.4만명 증가

- 15세 이상 고용률 63.3%로 보합(역대 공동 1위, '82.7월~), 15~64세 고용률 70.4%로 +0.5%p 상승(역대 1위, '89.1월~)

* 고용률(15세+, %): ('25.3/4)63.5 (4/4)62.7 ('26.1/4)61.8 (2/4)63.2 (7)63.3 **(8)63.3**
고용률(15-64세, %): ('25.3/4)70.2 (4/4)70.0 ('26.1/4)69.3 (2/4)70.1 (7)70.3 **(8)70.4**

- 경제활동참가율 64.6%로 보합(역대 공동 1위, '99.6월~)

* 경활률(15세+, %): ('25.3/4)64.9 (4/4)64.6 ('26.1/4)64.1 (2/4)65.1 (7)65.0 **(8)64.6**

- 실업률은 2.0%로 보합(^{8월 기준}역대 최저 2위, '99.6월~)

* 실업률(15세+, %): ('25.3/4)2.2 (4/4)2.9 ('26.1/4)3.5 (2/4)2.9 (7)2.6 **(8)2.0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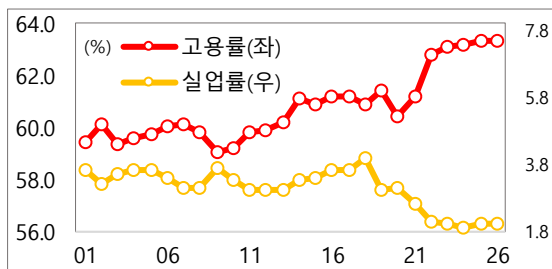
-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8.4만명 증가

*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21.6 (4/4)19.5 ('26.1/4)18.3 (2/4)3.2 (7)10.8 **(8)18.4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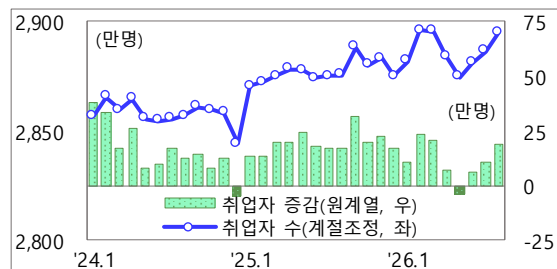
-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전월대비 8.2만명 증가

*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(전기비, 만명): ('25.3/4) 2.8 (4/4)△0.2 ('26.1/4)11.7 (2/4)△11.2 (7)5.3 **(8)8.2**

15세 이상 고용률·실업률(원계열, 매년 8월)



전체 취업자수 및 증감(원계열, 계절조정, 전년비)



□ (산업) 서비스업 증가세 지속, 제조업·건설업 감소폭 축소

- (서비스) 지식기반서비스업 개선 등으로 증가폭 확대(29.5→34.5만명)

* 서비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51.1 (4/4)46.7 ('26.1/4)31.5 (2/4)25.4 (7)29.5 **(8)34.5**

* 공공복지 외 서비스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22.0 (4/4)20.9 ('26.1/4)10.8 (2/4)2.9 (7)7.6 **(8)12.7**

- 정보통신(2.2→2.8만)·금융보험업(3.4→2.3만) 증가세 지속, 전문과학(△4.4→△0.5만)은 감소폭 축소(계절조정 전월비는 4개월 연속 증가)
 - * 정보통신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△0.4 (4/4)0.9 ('26.1/4)△2.0 (2/4)3.0 (7)2.2 **(8)2.8**
 금융보험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3.4 (4/4)3.7 ('26.1/4)1.6 (2/4)0.6 (7)3.4 **(8)2.3**
 전문과학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5.0 (4/4)△1.9 ('26.1/4)△8.8 (2/4)△8.8 (7)△4.4 **(8)△0.5**
 ↳ 계절조정 취업자(전월비, 만명): ('26.(2)△1.6 (3)2.9 (4)△0.2 (5)2.2 (6)2.3 (7)0.4 **(8)2.3**
- 보건복지(17.3→18.6만명), 공공행정(4.6→3.2만명)은 돌봄수요 증가, 직접일자리 사업 정상추진 등으로 증가세 지속
 - * 보건복지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29.0 (4/4)26.0 ('26.1/4)25.6 (2/4)22.9 (7)17.3 **(8)18.6**
 공공행정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0.1 (4/4)△0.2 ('26.1/4)△4.9 (2/4)△0.4 (7)4.6 **(8)3.2**
- 도소매(△0.5→2.1만명), 운수창고(△0.5→2.1만명) 증가전환, 예술여가 증가폭 확대(4.8→7.3만명), 반면 숙박음식(0.2→△6.1만명)은 감소 전환
 - * 도소매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1.3 (4/4)3.4 ('26.1/4)0.9 (2/4)△4.4 (7)△0.5 **(8)2.1**
 운수창고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1.4 (4/4)4.2 ('26.1/4)7.6 (2/4)3.4 (7)△0.5 **(8)2.1**
 예술여가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4.1 (4/4)6.2 ('26.1/4)5.3 (2/4)5.1 (7)4.8 **(8)7.3**
 숙박음식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△1.5 (4/4)△0.7 ('26.1/4)△1.5 (2/4)0.0 (7)0.2 **(8)△6.1**
- **(제조) 원자재가격 부담 완화 기대 등 포함한 기업심리 개선 등으로 감소폭 축소(△6.8→△3.8만명)**
 - * 제조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△6.7 (4/4)△5.2 ('26.1/4)△2.7 (2/4)△9.7 (7)△6.8 **(8)△3.8**
 - * 일평균 수출 증가율(전년비, %): ('26.1)14.0 (2)49.8 (3)43.9 (4)47.7 (5)60.5 (6)59.4 (7)69.6 **(8)72.5**
 - * 제조업 BSI(장기평균=100): **(26.3)98.9** (4)95.9 (5)98.0 (6)100.3 (7)98.2 (8)100.5 **(9)102.5**
 원자재구입가격전망BSI(장기평균=100): **(26.3)125** (4)138 (5)149 (6)141 (7)136 (8)128 **(9)122**
- **(건설) 자재수급 개선 등으로 감소폭 축소(△5.7→△3.2만명)**
 - * 건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△10.2 (4/4)△10.6 ('26.1/4)△2.5 (2/4)△3.9 (7)△5.7 **(8)△3.2**
 - * 자재수급지수: ('25.12)89.4 ('26.1)88.5 (2)91.0 (3)74.3 (4)55.3 (5)63.4 (6)66.3 **(7)80.0**
- **(농림)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 등으로 감소세 지속(△8.0→△10.9만명)**
 - * 농림어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△13.7 (4/4)△12.4 ('26.1/4)△8.5 (2/4)△10.2 (7)△8.0 **(8)△10.9**

□ **(지위·연령) 상용직 비중 57.7%(+0.3%p), 30·40·50대 고용률 상승**

- **(지위) 상용직 증가폭 확대(7.1→18.0만명)·상용직 비중 역대 최고, 임시(△5.0만명)·일용직(△1.7만명)은 감소**
 - * 상용직 비중(8월, %): ('00)29.8 ('05)34.8 ('10)42.3 ('15)48.5 ('20)53.8 ('25)57.4 **(26)57.7**
 임금근로자 증감(전년비, 만명, 7월→8월): <상용>7.1→18.0 <임시>△4.0→△5.0 <일용>△4.1→△1.7
- 비임금근로자(7.1만명)는 고용有(4.7만명)·無(6.2만명) 자영업자 증가, 무급가족종사자(△3.7만명)는 감소폭 확대
 - * 비임금 증감(전년비, 만명, 7→8월): <고용有>7.5→4.7 <고용無>7.5→6.2 <무급>△3.2→△3.7

○ (연령) 30·40·50대 고용률 상승, 청년층·60대 이상은 하락

- 청년층 고용률(44.1%, △1.0%p) 하락, 실업률(5.4%, +0.5%p) 상승

(%, %p)		'25년	4/4	'26.1/4	'26.2/4	6월	7월	8월
고용률	청년	45.0 (△1.1)	44.4 (△0.9)	43.5 (△1.0)	43.8 (△1.9)	43.9 (△1.7)	44.2 (△1.6)	44.1 (△1.0)
	20初	43.6 (△1.5)	42.6 (△1.3)	40.5 (△2.2)	41.3 (△3.2)	41.9 (△2.8)	42.6 (△3.2)	42.4 (△1.8)
	20後	71.8 (△0.7)	71.5 (△0.7)	70.6 (△0.6)	71.5 (△1.0)	71.6 (△0.8)	71.4 (△0.6)	71.2 (△0.5)
실업률	청년	6.1 (+0.2)	5.7 (+0.1)	7.4 (+0.6)	7.1 (+0.4)	7.0 (+0.9)	6.8 (+1.3)	5.4 (+0.5)
	20初	6.6 (+0.3)	5.4 (△0.4)	8.2 (+0.1)	7.7 (+0.2)	6.8 (△0.1)	7.1 (+1.3)	5.2 (△0.1)
	20後	5.9 (+0.3)	5.8 (+0.2)	6.9 (+0.6)	6.8 (+0.5)	7.0 (+1.3)	6.7 (+1.3)	5.6 (+0.8)

- 청년층 쉬었음(39.5만명, △5.1만명)은 7개월 연속 전년비 감소(☞BOX)

* 청년 쉬었음(만명): ('25.8)44.6 ('26.1)46.9 (2)48.5 (3)40.2 (4)39.1 (5)38.4 (6)35.9 (7)36.7 (8)39.5

◇ 일자리 어려움 겪는 '실업자+취업준비+쉬었음' 비중(8월 12.6%, 98.4만명)은 전년비 감소(△0.5%p, △5.8만명), 예년('21~'25년 평균 13.3%)보다 낮은 수준

청년층 인구 중 쉬었음·취업준비·실업자 비중(8월 기준, %)

(8월 기준, 만명, %)		최근 5년 평균 ('21~'25)	'21	'22	'23	'24	'25	'26
합계(A+B+C)	수(인구내비중)	110.5 (13.3)	128.4 (14.7)	115.2 (13.5)	103.5 (12.4)	101.9 (12.6)	103.7 (13.1)	98.4 (12.6)
실업자(A)	수(인구내비중)	20.1 (2.4)	24.3 (2.8)	22.9 (2.7)	18.5 (2.2)	16.2 (2.0)	18.4 (2.3)	19.5 (2.5)
취준생(B)	수(인구내비중)	47.7 (5.7)	59.6 (6.8)	54.1 (6.3)	44.6 (5.3)	39.7 (4.9)	40.7 (5.1)	39.3 (5.1)
쉬었음(C)	수(인구내비중)	42.7 (5.1)	44.5 (5.1)	38.2 (4.5)	40.4 (4.8)	46.0 (5.7)	44.6 (5.6)	39.5 (5.1)

※ 청년층은 쉬었음 사유(노동시장적 사유, 경제활동 준비, 일시적 휴식 등), 구직의사 등 이질적 특성 보유

* "쉬었음"은 비경활 활동상태 중 다른 명확한 유형(육아가사, 취업준비, 통학 등)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사유를 모두 포괄하여 이질성이 높은 특성

* 20~30대 쉬었음 사유('25.8월 비경활부가조사, %):

(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)31.0 (건강)20.7 (다음일 준비)19.1 (일자리 없음)9.3

- 30대는 인구증가 비해 취업자수 더 크게 증가하며 고용률 상승, 40대는 인구감소 비해 취업자수 소폭 감소하며 고용률 상승

* 30대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5.3/4)0.6 (4/4)0.2 ('26.1/4)0.5 (2/4)0.1 (7)0.0 (8)0.3 **【81.1】**

40대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5.3/4)0.7 (4/4)1.0 ('26.1/4)1.2 (2/4)0.8 (7)0.7 (8)0.8 **【80.7】**

- 50대는 인구는 감소했으나 취업자수는 증가하며 고용률 상승, 60세 이상은 고령화 등으로 인구 큰 폭 증가하며 고용률 하락

* 50대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5.3/4) 0.1 (4/4) 0.3 ('26.1/4)0.8 (2/4)0.7 (7)1.1 (8)1.3 **【78.8】**

60세+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5.3/4) 0.9 (4/4) 0.5 ('26.1/4)0.1 (2/4)△0.3 (7)△0.1 (8)△0.3 **【47.6】**

2. 평가 및 대응

□ '26.8월 취업자수는 **2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**(^{7월}10.8→^{8월}18.4만명),
다만 **청년, 제조·건설업** 취업자수 감소 지속 등 **부문별 어려움** 상존

- 서비스업은 지식기반서비스업 개선 등에 힘입어 증가폭 확대
 - 보건복지, 공공행정은 직접일자리 사업 정상추진 등으로 증가세 지속
 - 도소매·운수창고 증가전환 및 예술여가 증가폭 확대, 반면 숙박음식은 전년 기저(^{'25.7월}△7.1→^{8월}0.0만명) 등으로 감소 전환
- 제조업은 원자재 가격 완화 기대 등 포함한 기업심리 개선, 건설업은 자재수급 개선 등으로 감소폭 축소
- 청년은 고용비중 높은 숙박음식·제조업 취업자 감소 등으로 고용률 하락세 지속, 다만 쉬었음은 7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
 - * 청년 쉬었음(만명): ('25.8)44.6 ('26.1)46.9 (2)48.5 (3)40.2 (4)39.1 (5)38.4 (6)35.9 (7)36.7 **(8)39.5**
↳ <전년비, 만명> ('25.8)△1.4 ('26.1) 3.5 (2)△2.0 (3)△5.3 (4)△2.4 (5)△1.2 (6)△4.9 (7)△6.9 **(8)△5.1**
- 9월은 최근 중동긴장 고조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'25.9월 31.2만명 증가했던 기저효과가 고용증가를 제약할 가능성

□ '27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**일자리사업 집행준비** 및 **홍보**에 만전 +
리스크관리 및 **3대 메가프로젝트** 신속추진 등 통한 **일자리 창출력 강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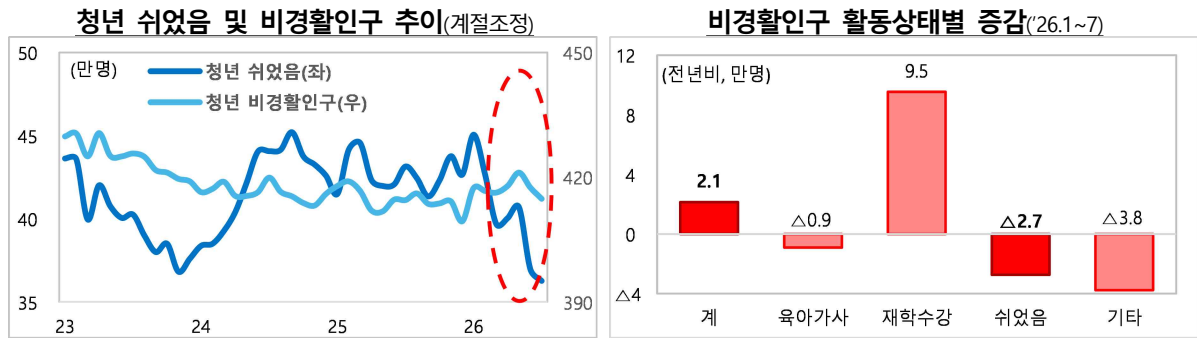
- '청년일자리 회복방안'(8.28) 등 '27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일자리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집행준비 및 홍보·사전안내에도 만전
- 제조·건설·농림어업 등 고용감소가 지속되는 업종은 일자리전담반 중심으로 산업활력 제고, 인력양성 등 대응과제 발굴
- 사회적 편익 창출에 기여하는 생산적 공공일자리도 지속 발굴·확대
- 에너지·공급망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3대 메가 프로젝트 신속추진 등 통한 경제전반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노력 병행

[BOX] 최근 청년 쉬었음 동향 및 평가

1. 최근 청년층(15~29)세 쉬었음 동향

□ 청년 쉬었음은 '24~'25.上까지 큰 폭 증가세 보이다 감소·정체 흐름
→ '26.2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, 감소폭도 확대 추세

- 다만 쉬었음과는 달리, 청년 전체 비경활인구는 비교적 전년과 유사
→ 쉬었음 감소가 **비경활** 內 **구성변화**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



2. 최근 감소요인 분석 ※ 마이크로데이터 활용하여 분석

① (**청년인구 감소**) 전체 **청년인구 감소**로 쉬었음 청년도 감소
(인구감소율('26.1~8월 △1.8%) 비례적으로 적용시 청년 쉬었음 △0.8만명 감소)

② (**재학·수강 증가**) 청년 비경활인구 중 **재학·수강인원**이 크게 증가*

* 청년 재학수강인원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5.7)△3.8 ('26.1)3.0 (2)5.1 (3)9.4 (4)11.9 (5)13.5 (6)11.9 (7)11.9

* 재학·수강은 ①정규교육기관(학교 등), ②입시학원, ③취업학원·기관으로 구성

▪ 인구가 많은 '10~'11년생*의 재학생(15세) 전입 + 기존 대학생 **졸업소요 기간 증가**(^{'25년}4년 4.4개월 → ^{'26년}4년 5.7개월) → **재학·수강 전환** 가능성

* 연도별 출생아수(만명): ('08)46.6 ('09)44.5 (**'10)47.0** (**'11)47.1** (**'12)48.4** ('13)43.6

▪ **청년뉴딜** 등 훈련프로그램이 본격집행*되면서 **직업훈련기관·취업학원** 수강생 확대 등 **쉬었음→훈련유입** 조짐도 관측

* K-뉴딜 아카데미(7.3 개시, 3,600명 진행중), 부트캠프(7월부터 4,000명 모집중) 등

* 취업학원·기관(전년비, 만명): ('26.1/4)△1.2 (2/4)0.9 (**7)4.0**

③ (**비경활→경활 전환**) 최근 청년 취업자 수 보다 청년 경활인구가 더 적게 감소* → **구직행위 통한 노동시장 유입** 시사(통계상 실업으로 분류)

* 청년 취업자수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6.4)△19.4 (5)△25.5 (6)△19.7 (7)△19.1 (8)△14.3

청년 경활인구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6.4)△21.7 (5)△25.0 (6)△17.8 (7)△15.0 (8)△13.2

3. 평가 및 대응

□ 최근 청년 쉬었음 감소는 더 지켜볼 필요는 있으나, **훈련-구직-취업 사다리***의 **앞단계 복원** 신호로도 해석될 여지

* ①쉬었음 → ②훈련 등 취업준비 → ③구직활동(경활유입, 과도기실업) → ④취업성공

- 다만 청년 취업자수·고용률 등 **핵심 체감지표는 아직 부진** → 최근 쉬었음 감소세가 고용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총력 대응